

## 중부해경청, 제4차 민관합동 수난 대비 기본훈련

- 22일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 해상 낚시어선 사고 가상 대응 훈련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해양 재난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11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충남 보령시 대천항 해경전용부두 및 인근 해상에서 '2023년도 제4차 민관합동 수난 대비 기본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보령해양경찰서, 보령시청, 보령소방서, 보령시 보건소, 육군 제7해안감시대대, 충남도청 병원선, 민간 해양구조대 등 8개 기관 및 단체가 참가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중형 및 소형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연안구조정, 구조대 구조정 등 10척의 해양경찰 구조 세력을 동원했다.

22일 개최된 제4차 민관합동 수난 대비 기본훈련은 운항 중이던 낚시어선이 암석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하여 실시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한 다수 사상자의 응급처치, 환자 상태에 따른 중증도 분류,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 이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해양경찰의 사고 신고 접수로부터 시작된 훈련은 △유관 기관에 대한 사고 발생 사실 전파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구조본부 가동 △보령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출동 △선박 내 고립환자 구조 △해상과 육상

을 연계한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해양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높은 동절기를 앞두고 실시하는 해상 재난사고 대응 훈련으로서 선박사고 발생에 대비한 초기 대응, 응급환자 이송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박제수 총경은 “보령 지역 해양 재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담당부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과 장	총경	박제수 (032-728-8048)
		계 장	경감	유정호 (032-728-8147)
		담 당	경사	김태권 (032-728-8347)
홍보부서	기획운영과 홍보계	보도담당	경위	박세은 (032-728-8212)